



모아종합건설, GIST에 1억2000만원 기탁

GIST(지스트·총장 문승현)는 ㈜모아종합건설(회장 박치영·오른쪽)로부터 GIST의 사회공헌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6일 밝혔다.

박 회장은 '박치영 강의실 헌관 제막식'과 기탁금 전달식에서 "GIST가 지역을 대표하는 이공계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여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기탁된 기금은 GIST 발전재단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아종합건설은 1989년 창업 이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21세기 건축문화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임명규 전남도의회의장, 복지시설에 생필품



임명규(보성2·국민의당) 전남도의회 의장이 설을 맞아 6일 보성요양병원과 사랑들아동그룹홈 등 보성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



빛고을전남대병원(병원장 이신석)은 최근 개원 4주년을 맞아 이상용 전남대병원장·정신 화순전남대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전남대병원 제공>

인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순석 ▲간호대학장 오상은 ▲도서관장 이명규 ▲생활관장 윤영중

“창업자들 ‘갑질’ 당하지 않게 도움 주고 싶어요”

자영업 돕는 착한 치킨 사장님 '네고치킨' 정호용 대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탓에 가맹점주가 되려는 창업자들은 끊이지 않는다. 자영업 난립시대에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겪지 않도록 무료로 가맹점을 내주고, 운영까지 돕는 청년이 있다.

“제가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잘 안니다. 자영업자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광주시 동구 조선타이거즈 '네고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정호용(37·사진) 대표는 광주지역에 총 8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그는 점주들에게 단 한푼의 가맹비도 받지 않고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주들 사이에서 '동반자'로 불리고 있다.

우선 그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웃도는 가맹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또 매달 20만~50만원에 달하는 가맹관리비도 없이 자신이 창업한 '네고치킨'의 운영 노하우부터 원재료 공급 등 물류까지 자신과 같은 비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인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열었다 실패

지난해 창업...광주에 8개 가맹점

관리비 없고 무료로 가맹점 내줘

점주들과 협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출처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건의·문의까지 들어주다 보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삶은 내색 한번 해본 적 없다.

정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 가맹점을 선택하는 것인데, 초기 투자비가 많으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마진은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점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본인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느낀 온갖 부당함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에 입사해 서울살이를 하던 정 대표는 40대에 정년퇴직 압박을 느끼는 선배들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선배들은 퇴직 후 가맹점을 여는 등 새로운 삶에 도전



하지만 평생 직장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탓인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젊을 때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는데 투자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요식업에 뛰어들자는 생각이 퇴사했습니다.”

고향인 광주에 돌아온 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현재의 위치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열었다. 가맹점 모집을 내건 본사의 제안은 달콤했다.

하지만, 본사의 요구는 점차 달라졌다. 투자해야 할 비용은 늘어갔고, 이와 다른 갑질도 당하다가 결국 지난해 2월 '네고치킨'을 창업하게 됐다.

그는 “창업 후 사업이 변하면서 자연스레 가맹문의가 들어왔다”며 “경쟁이 심한 치킨업계에 도전하는 분들이 제가 겪은 부당함을 겪지 않았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무료로 가맹점을 열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각 매장 점주들과 협의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28곳에 무료로 치킨을 후원했다. 또 올해는 동부소방서와 지역 청년들이 '꽃메요양원'에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으로 치킨을 내놓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저도 소자본 창업자로 점주들과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작은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작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안명수 광주축산농협 조합장 ‘자랑스러운 조합장상’

1130개 조합 중 3명 수상 농협 최고 권위

광주축산농협 안명수(사진) 조합장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은 전국 1130개 조합 가운데 3명의 조합장이 수상하는 농협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실적배당과 복지향상 등 조합원들에게 경영우수평가를 받고, 채권부실과 금융사고가 없어야 한다. 전국 농협의 고객만족경영에 앞장서 우수한 인력 확충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조합으로, 부정·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등 전국 조합장들을 종합심사해 선정한다.

안명수 조합장은 지난 1994년 조합장 취임 후 6선을 하며 지역 조합장들의 ‘민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경영혁신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유통구조개선, 금융사업개편을 통해 자립기반을 다져 조합원의 실익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광주축산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신용사업장 10곳과 마트, 사료공장을 주요 사업으로 총 사업총량 1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이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한우직매장 등 유통혁신을 비

조선대치과병원·5·18민주화운동교육관 진료협정 체결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가운데)이 최근 병원 3층 다산실에서 5·18민주화운동교육관(관장 위인백·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진료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치과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소중함 가치를 공유하고, 회원들에 대한 양질의 치료진료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위인백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광주와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광주전남지부 방문 직원격려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사진) 회장이 6일 건협 광주전남지부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2017년도 사업 결과 분석 및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 계획 보고를 받았다.

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에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리고 제5군 감염병 예방 사업을 지원하는 법정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능형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시행, 당뇨병 전단계 관리사업·금연사업 운영, 최신 검진장비·우수한 의료인력 보강, 꾸준한 품질관리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노윤호 日 팬클럽, 광주공동모금회에 500만원 기부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유노윤호(32·본명 정윤호)의 일본 팬 사이트 회원들은 6일 유노윤호의 생일을 맞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10여 년이 넘게 유노윤호 생일에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KACHIKAJA Be with Yunho (from Japan) 팬클럽이 광주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광주 아동복지시설에 500만 원 상당의 3층 침대 및 침구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는 팬들이 광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생필품, 쌀 등 생필품을 기탁했으며 모교 장학금 기부, 윤호 도서관 개관 등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 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덕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

- 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축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 모집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초등 및 중학교 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생 모집=문해교육개론 등 집합교육 및 실습 이수 후 문해교육 교원 자격 취득 과정. 20일(화)까지 접수마감. 문의 062-600-5222.
 - ▲정원타이거즈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생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초반, 한

- 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각각 문화의 집 수강생=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월~목 문의 062-951-9461.

부음

- ▲이덕수씨 별세 이대대학(자유인디고)·대학(dux아카데미)·은하·율이씨 부친상 성영희(재능교육)·임성현(dux아카데미)씨 시부상 흥성홍(홍이비인후과)·신동호(변호사 신동호 법률사무소)씨 방부상=발인 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구제민씨 별세 구한림씨 부친상 임춘화씨 시부상 김보미씨 배우자상=발인 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윤국중씨 별세 석군(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씨 부친상=발인 7일(수)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24 만평장례식장 062-611-0000.

謹 尙加 故人的冥福을 빕니다 弔	
210호 故노병진 님(남/75세) 子/婦 : 노병진/이정희, 태성/경인자 女/婿 : 노남이/박종범 孫 : 노승찬, 권우, 유찬, 박은영, 한영 • 발 인 : 2월 8일 • 장 지 : 영락공원	301호 故박기복 님(남/80세) 子/婦 : 박승현, 윤수/김혜련 女/婿 : 박인경/오갑선 孫 : 오세이, 박근호, 재연 • 발 인 : 2월 8일 • 장 지 : 중앙선영
401호 故김한희 님(여/35세) 子 : 김주원, 시원 女/婿 : 김희우/김혜순 夫/妻 : 김한희 • 발 인 : 2월 8일 • 장 지 : 보성묘교	101호 故윤남예 님(여/93세) 女/婿 : 이승이/문봉기 孫 : 문영석, 장석 • 발 인 : 2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